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인문계열)

성명

수험번호

문항	구성	배점	시험 시간
10문항	국어 8문항(1~8번) 수학 2문항(9~10번)	100점	90분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국어 문항은 소문항별 답란에 단어, 구 또는 문장으로 답하며, 글자 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지켜야 합니다.
3. 수학 문항은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 소문항별 답란에 답만 기재합니다. 계산은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수학 문항은 소문항별로 정답인 경우에만 해당 배점을 부여하며,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5.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고, 수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1

1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토머스 쿤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개별 사실이 끊임없이 보태지는 과정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한 시대의 과학자들은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볼지, 어떤 방법과 장비를 사용할지, 어떤 해답을 타당하다고 인정할지를 공유한다. 쿤은 이처럼 연구의 모범이 되는 성취와 그에 결합된 개념·방법·가치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세부 문제를 푸는 활동이 정상 과학이다. 정상 과학의 연구자는 패러다임 자체를 시험하기보다, 그것이 제시한 규칙에 따라 자연이라는 퍼즐을 푼다.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패러다임의 예측과 어긋나면 변칙 사례가 생긴다. 그러나 변칙 사례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곧바로 패러다임을 버리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먼저 측정 장치의 오류, 실험 조건의 미비, 보조 가정의 문제를 살피며 기존 틀 안에서 불일치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시도는 오히려 패러다임의 적용 범위를 정교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핵심적인 변칙 사례가 거듭 쌓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복해서 실패하면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쿤의 과학 혁명론에서 연구 공동체가 이러한 상태에 들어선 것을 (㉠)라고 한다.

이 국면에서는 기존 패러다임과 다른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경쟁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다. 연구 공동체가 경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과학 혁명이 일어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낡은 이론에 새로운 명제를 단순히 보태는 일이 아니다. 전환 전후의 과학자들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무엇이 설명되어야 하는 사실인지, 어떤 질문이 의미 있는지, 어떤 해법이 성공적인지를 다르게 판단한다. 따라서 과학 혁명은 연구 문제와 평가 기준이 함께 재편되는 비연속적인 변화이다.

쿤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 완전히 중립적인 공통 척도를 세우기 어려운 관계를 공약 불가능성이라 불렀다. 두 패러다임이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와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얹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진영이 전혀 대화할 수 없다거나 관찰 자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 문제 해결 능력, 이론의 단순성 등을 근거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패러다임에도 속하지 않은 단일한 판단 규칙만으로 선택을 자동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칼 포퍼는 과학 이론을 확정적으로 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무리 많은 백조를 관찰해도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보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이 틀렸을 경우 어떤 관찰 결과가 나타날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반례가 될 수 있는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 주장은 경험적 시험을 피하므로 과학적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포퍼의 반증주의에서 좋은 과학자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 뒤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엄격한 시험에 노출한다. 시험을 여러 번 통과한 이론도 잠정적으로 지지될 뿐 확증된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시험에는 초기 조건과 보조 가정이 함께 사용되므로 예측 실패의 원인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측정 조건과 보조 가정을 충분히 점검한 뒤에도 핵심 예측이 반복해서 빗나간다면 그 이론은 반증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보 기〉

지배적 패러다임의 핵심 이론 P는 조건 C에서 현상 X가 나타난다고 예측한다. 여러 연구팀이 측정 장치를 교정하고 보조 가정을 따로 검사했지만, C에서 X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이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계속 실패했으며, 아직 이를 대신할 경쟁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 (1) 윗글의 문맥과 쿤의 과학 혁명론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두 음절의 한자어를 쓰시오. (3.3점)
- (2) ㉠이 가리키는 관계의 이름을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 여섯 음절로 쓰시오. (2.7점)
- (3) <보기>의 상황을 (가)의 관점과 (나)의 ㉠ 관점에서 각각 판단하되, ‘변칙 사례의 누적’과 ‘반증’을 모두 포함하여 5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쓰시오. (5.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이 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는 이따금 하드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등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 자를 쓰고 건너 굻둑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이상, 「산촌여정」

* MJB: 커피 상표. * 체전부: 우편집배원. * 하드롱: 누런 갈색의 종이. * 호까: 담뱃갑 종이.

(나)

사람은 어떤 대상을 되풀이하여 접하면 그것을 처음 볼 때처럼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 가령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는 건물의 색이나 창문의 모양을 일일이 의식하지 않고도 길을 찾는다. 이처럼 친숙한 대상을 빠르게 알아보는 능력은 생활의 효율을 높이지만,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감각적 특성에 대한 주의를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러시아 형식주의자 빅토르 시클롭스키는 이러한 지각의 상태를 ㉠자동화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시클롭스키가 말한 ‘낯설게 하기’는 익숙한 대상을 생소한 방식으로 제시하여 자동화된 지각을 흔드는 표현 원리이다. 표현이 평소의 명칭이나 서술 방식을 벗어나면 독자는 대상을 곧바로 알아보고 지나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독자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들이며, 이미 안다고 여긴 대상의 성질을 다시 살피게 된다. 낯설게 하기는 단지 기이한 말을 사용하여 놀라움을 주는 기법이 아니라, 무뎠던 감각을 회복하여 대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낯설게 하기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물을 통상적인 이름 대신 그 모양이나 쓰임으로 풀어 말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익숙한 장면을 동물이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또한 크기나 거리의 감각을 비정상적으로 바꾸거나,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뒤바꾸어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관습적 관계를 뒤집는 방식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속한다는 상식을 역전함으로써 익숙한 공간과 사물을 새롭게 보게 한다.

이때 실제 대상 자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독자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낯설게 하기는 대상의 (㉢)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표현임을 알면서도, 그 표현이 만든 새로운 관계를 따라가며 대상의 특징을 이전보다 선명하게 지각한다.

수필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일상의 경험을 새롭게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글쓴이가 자연의 사물이나 소리를 도시의 사물에 빗대거나, 두 공간의 통념적인 관계를 거꾸로 설정하면 산촌은 단순히 도시와 반대되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의 기억과 산촌의 감각이 겹쳐지면서, 독자는 평범해 보이던 풍경을 글쓴이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다시 경험하게 된다.

- (1) 팔봉산의 짐승을 바라보며 느낀 착각을 드러내는 구절을 (가)에서 찾아, ‘착각’으로 끝나는 10어절로 쓰시오. (2.0점)
- (2) (㉠)에 들어갈 말을 ‘-화’로 끝나는 두 음절의 한자어로 쓰시오. (3.0점)
- (3) (1)에서 찾은 구절을 (나)의 ㉡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사용된 방법과 그 지각상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4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게임 이론은 여러 참여자의 선택이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분석한다. 이때 각 참여자가 얻는 이익을 보수라고 하며, 참여자는 상대의 선택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크게 하는 전략을 고른다고 가정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게임이다.

두 참여자는 각각 협력과 배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두 사람이 모두 협력하면 각자는 R을 받고, 한 사람만 배신하면 배신자는 T, 협력자는 S를 받는다. 둘 다 배신하면 각자는 P를 받는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T > R > P > S$ 의 관계가 성립한다. 상대가 협력할 때에는 협력의 보수 R보다 배신의 보수 T가 크고, 상대가 배신할 때에도 협력의 보수 S보다 배신의 보수 P가 크다. 따라서 배신은 ㉠상대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 더 큰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한다.

게임이 한 번만 시행된다면 두 참여자는 모두 배신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각자는 P를 받는데, 이는 두 사람이 협력할 때의 R보다 작다. 개인별로 합리적인 선택이 상호 협력보다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참여자들이 게임을 거듭하면 현재의 행동이 상대의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이 달라진다.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반복 게임을 생각해 보자. 참여자가 미래 보수를 현재 보수보다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0 이상 1 미만의 할인 인자 δ 로 나타낼 수 있다. k회 뒤에 받을 보수 x의 현재 가치는 $\delta^k \times x$ 이다. δ 가 클수록 참여자는 먼 미래의 보수를 덜 할인하므로 더 인내심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반복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협력하되 상대가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이후 계속 배신하는 암울 전략이다. 두 사람이 이 전략을 따르면 협력을 지킬 때 얻는 전체 보수의 현재가치는 $R/(1-\delta)$ 이다. 반면 한 사람이 이번에만 배신하면 당장은 T를 얻지만, 이후 상대의 보복으로 매회 P를 얻으므로 전체 보수의 현재가치는 $T + \delta P/(1-\delta)$ 가 된다. 따라서 ㉡암울 전략 아래에서 협력이 유지될 조건은 $\delta \geq (T-R)/(T-P)$ 이다.

할인 인자가 커지면 협력을 계속하여 얻을 미래 보수와 배신 뒤에 받을 보수의 차이가 현재의 선택에서 더 무겁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할인 인자가 커질수록 일회적으로 배신하려는 유인은 약해진다. 다만 유인이 약해진다는 말이 언제나 배신으로 잃는 미래의 보수가 당장의 배신 이득보다 크다는 뜻은 아니다. 할인 인자가 아직 임계값보다 작다면 배신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이점은 할인 인자가 작을 때보다 줄어든다. 임계값 이상이 되어야 미래의 손실이 일회적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여 상호 협력이 균형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보 기〉

매회 보수가 R=5, T=8, P=2인 두 무한 반복 게임 X와 Y가 있다. 각 게임의 모든 참여자는 암울 전략을 사용하며, 할인 인자는 X에서 0.4, Y에서 0.7이다.

- (1) ㉠에 해당하는 전략을 일컫는 4음절 용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3점)
- (2) ㉡을 적용하여 <보기>의 X와 Y에서 상호 협력이 균형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쓰시오. (3.1점)
- (3) ㉢의 이유를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라는 말을 넣어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1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재화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경합성이라 하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을 배제성이라 한다. 반대로 공공재는 대체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얻는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이다. 비배제성은 재화가 일단 공급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국방이나 거리의 가로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은 무임승차를 낳는다. 사람들은 공공재가 공급된 뒤에는 비용을 내지 않고도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얻을 편익보다 낮은 금액만 지불하겠다고 말하거나 아예 지불을 거부할 유인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리라고 기대할수록 이러한 유인은 커진다. 이때 무임승차자는 공공재의 편익을 얻으면서도 그 생산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사적 재화의 판매자는 값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재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생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얻는 편익만큼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은 생산 비용보다 크더라도, 공급자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이 비용보다 작으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거래에만 맡기면 시장은 공공재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한다. 이를 공공재의 (㉡)이라 한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적 재화와 달리 한 단위를 추가로 공급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 한 단위의 사회적 편익은 그 단위에서 각 개인이 얻는 편익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이렇게 구한 사회적 편익이 추가 생산 비용보다 크면 그 단위를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대표적 방법은 정부가 조세를 거두어 비용을 분담시키고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의 공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세는 공공재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무임승차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구성원 간의 약속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자발적 분담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한 기술을 이용해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면 요금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서 언제나 적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역시 개인별 편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결 방식의 선택에서는 무임승차를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정보를 얻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 기〉

세 주민 갑, 을, 병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재난 방송을 한 단위 제작하려 한다. 방송이 시작되면 비용을 내지 않은 주민도 청취할 수 있으며, 한 주민의 청취는 다른 주민의 청취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작 비용은 7만 원이다. 민간 사업자는 어느 한 주민이 제작 비용 전액을 내야 방송을 제작하지만, 세 주민은 서로 협의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편익만을 고려해 지불 여부를 정한다.

| 주민 | 방송 한 단위에서 얻는 편익 |

| --- | ---: |

| 갑 | 4만 원 |

| 을 | 3만 원 |

| 병 | 2만 원 |

(1) ㉠에 해당하는 공공재의 성질을 윗글에서 4음절로 찾아 쓰시오. (2.3점)

(2) ㉡에 들어갈 ‘공급’으로 끝나는 4음절의 경제학 용어를 쓰시오. (3.0점)

- (3) ㉔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할 때, 민간 시장의 결과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각각 ‘공급’ 또는 ‘비공급’으로 쓰시오. (3.7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기가 위축되어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줄면 생산과 고용도 감소할 수 있다. 이때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정부 지출의 증가분은 공사 업체나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지급된다. 소득을 얻은 경제 주체가 그 일부를 소비하면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이 다시 늘어난다. 이처럼 최초의 정부 지출이 소비와 소득의 연쇄적인 증가를 일으켜 국민 소득을 최초 지출액보다 크게 늘리는 현상을 승수 효과라고 한다.

승수의 크기는 사람들이 추가 소득을 소비와 저축에 어떻게 나누는지에 좌우된다. ㉠추가로 얻은 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한다.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면 새로 생긴 소득 100억 원 가운데 80억 원이 다음 단계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단순한 경제 모형에서 한계 소비 성향을 c 라고 하면 정부 지출 승수는 $1/(1-c)$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의 연쇄가 오래 지속되어 승수가 커진다.

예를 들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고 정부가 지출을 100억 원 늘리면, 첫 소득 100억 원에 이어 80억 원, 64억 원, 51.2억 원의 소득이 차례로 생긴다. 각 단계의 증가분은 작아지지만 이를 모두 합하면 국민 소득은 이론상 500억 원 증가한다.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는 몫은 다음 단계의 지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득의 순환에서 빠져나가는 누출이 된다.

그러나 현실의 승수는 이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다. 추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소비가 수입품 구매로 향하면 국내 생산으로 연결되는 지출이 줄어든다. 또한 경제에 유희 생산 설비와 실업 인력이 충분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 여력이 부족하면 물가 상승이 나타나 명목 소득의 증가가 실질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승수는 정부 지출의 파급 경로를 보여 주지만,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누출과 생산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나)

대부 자금 이론은 재정 지출의 효과를 자금 시장의 관점에서 살핀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 재원을 마련하면 자금 시장에서 정부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대부 자금의 공급이 일정하고 금리가 자금 수요에 반응한다면 금리는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커지므로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줄이고, 가계도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 등을 미룰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금리 상승을 거쳐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한다. 구축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늘린 지출의 일부가 민간 지출의 감소로 상쇄된다. 따라서 대부 자금의 공급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국채로 조달한 정부 지출이 만드는 소득 증가 폭은 민간 지출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승수의 예측치에 비해 (㉢). 다만 자금 공급이 풍부하여 금리가 거의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약할 수 있다.

- (1) ㉠이 뜻하는 바를 나타내는 6음절 용어를 (가)의 둘째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2.5점)
- (2) (나)의 전제가 성립할 때 ㉢에 들어갈 말을 ‘확대된다/축소된다’ 중 하나로 쓰시오. (3.0점)
- (3) 두 글을 종합하여, 한계 소비 성향과 구축 효과가 정부 지출의 소득 증대 폭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포함해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비교하려면 먼저 ‘다양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해야 한다. 조사자는 흔히 일정한 구역에서 발견된 종과 각 종에 속하는 개체의 수를 기록한다. 이 자료에는 ㉠군집을 이루는 종의 가짓수와 종별 개체 수의 분포라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 있다.

종 풍부도는 한 군집에서 확인된 종의 수를 뜻한다. 사슴벌레 한 종만 사는 군집보다 사슴벌레, 나비, 거미가 함께 사는 군집의 종 풍부도가 더 높다. 이 값은 계산이 간단하고 종의 출현이나 소멸을 직접 보여 준다. 다만 조사 면적이나 조사 시간이 늘면 발견되는 종도 많아질 수 있으므로, 군집을 비교할 때에는 조사 조건을 같게 해야 한다.

종의 수가 같더라도 각 종의 개체 수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를 균등도라고 한다. 네 종이 각각 25개체씩 있는 군집은 한 종이 70개체이고 나머지 세 종이 각각 10개체인 군집보다 균등도가 높다. 따라서 종 풍부도만으로는 소수의 종이 군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종 풍부도와 균등도를 함께 반영하는 지수를 사용한다. 각 종의 상대적 비율을 p_i 라고 할 때 새넨 지수는 $-\sum p_i \ln p_i$ 로 계산한다. 심프슨 다양도 $1/\sum p_i^2$ 은 군집에서 개체를 독립적으로 두 번 뽑았을 때 서로 다른 종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종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두 지수는 각 종의 비율이 같을 때 최댓값을 갖는다.

㉡첫째 입장은 종의 출현과 소멸을 분명히 드러내는 종 풍부도만으로 다양성을 판단하자고 본다. 둘째 입장은 종의 수가 같아도 우점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종 풍부도와 균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지표를 택할지는 조사 목적에 달려 있지만, 지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배제하는지는 밝혀야 한다.

네 종으로 이루어진 A 군집의 개체 수가 25, 25, 25, 25이고, B 군집의 개체 수가 70, 10, 10, 10이라고 하자. 두 군집의 종 풍부도는 같지만 A 군집의 균등도가 더 높다. 따라서 새넨 지수와 심프슨 다양도에서 더 큰 값을 갖는 것은 (㉢)이다.

- (1) ㉠이 뜻하는 개념의 명칭을 제2문단에서 찾아 2어절, 4음절로 쓰시오. (2.4점)
- (2) ㉡에 제시된 두 입장의 차이를 ‘다양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5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4.2점)
- (3) ㉢에 들어갈 군집을 ‘A 군집’ 또는 ‘B 군집’ 중 하나로 쓰시오. (2.9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진은 셔터가 열린 짧은 동안 눈앞의 빛을 기록한다. 따라서 사진 한 장에는 사건이 전개된 시간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잘려 나온 한순간만 남는다. 그러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게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사진의 결함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을 알아보고 선택하는데 사진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사진론에서 이를 가리키는 말이 ‘결정적 순간’이다.

브레송이 중시한 것은 단순히 동작이 가장 격렬하거나 극적인 때가 아니었다. 거리의 사람과 사물이 맺는 관계, 사건이 품은 의미, 화면을 이루는 선과 면의 구성이 한순간에 맞물려야 했다. 가령 달리는 사람의 발이 물웅덩이에 닿기 직전의 모습은 그 자체로는 짧은 동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자세가 주변의 형태와 시각적 대응을 이루고, 곧 사라질 긴장까지 드러낸다면 그 순간은 사진으로 선택될 이유를 얻는다. ㉠사건의 의미와 화면의 형식이 동시에 질서를 얻는 때인 것이다.

이때 사진가는 우연한 장면을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움직이는 현실을 관찰하면서 인물의 동선과 주변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즉시 셔터를 눌러야 한다. 셔터를 너무 일찍 누르면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너무 늦게 누르면 그 관계가 흩어진다. 순간의 선택에는 기다림, 예측, 판단이 함께 작용한다.

브레송이 화면의 기하학적 구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현실을 미리 연출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가 추구한 구성은 현실 바깥의 질서를 장면에 강제로 덧씌우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속에 잠시 나타난 질서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진의 내용과 형식은 따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언제 셔터를 누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한 번의 행위 안에서 결합한다.

물론 한 장의 사진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보여 주지는 못한다.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특정한 순간을 골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브레송의 관점에서는 잘 선택된 한순간에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관계가 밀도 높게 담길 수 있다. 사진의 가치는 전체 시간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고, 흘러가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시화하는 데 있다.

(나)

한 사진 편집자가 홍수 구조 현장을 보도한다고 하자.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물을 건너는 장면만 크게 실으면 독자는 그 구조대원 개인의 영웅적 행동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주민의 신고, 여러 구조대원의 협력, 대피로를 마련한 과정도 있었다. 편집자는 한 장의 강렬한 사진만으로는 이 관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조 전후의 사진과 시간대별 설명을 함께 배치한다.

그는 단일 사진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사진 한 장에 나타난 관계가 사건을 이루는 모든 관계와 같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서 단일 사진은 사건의 의미를 (㉡)하고, 연속 사진과 설명은 생략된 시간적 맥락을 복원한다고 정리한다. 전자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후자는 변화의 과정을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이 편집자는 ㉢한 장의 강한 사진은 전체 과정의 진실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사진이 선택한 순간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 그 순간을 사건 전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 (1) ㉠을 가리키는 다섯 음절의 용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2.4점)
- (2) (가)와 (나)의 내용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응축’과 ‘복원’ 중 한 단어로 쓰시오. (3.0점)
- (3) 브레송의 관점에서 ㉢에 재반론하되, ‘전체 과정’과 ‘한순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공백과 문장부호를 포함한 45~55자(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6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여 경험을 분류하고 생각을 표현한다. 그런데 언어가 이미 이루어진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지, 아니면 생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도 관여하는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언어마다 세계를 나누는 어휘와 문법의 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어떤 언어는 한 대상을 여러 단어로 세분화하지만, 다른 언어는 그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기도 한다. 또한 사건의 시간이나 행위자를 문장에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언어가 있는 반면, 문맥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언어도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강한 주장은 이러한 차이가 사고의 가능 범위까지 정한다고 본다. 곧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없으면 그 언어의 화자는 그 개념을 생각하거나 해당 차이를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의 체계가 화자의 사고를 결정하며 언어 밖의 사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흔히 언어결정론이라 불린다. 이 입장을 일관되게 따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며, 한 언어의 개념을 다른 언어로 이해하는 데에는 원칙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약한 주장은 언어가 사고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지만, 화자가 무엇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는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범주는 반복적인 분류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언어가 우연한 사건에서도 행위자를 자주 밝혀 말하게 한다면, 그 언어의 화자가 행위자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화자도 질문을 받으면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결과는 언어가 기억의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만 기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에 해당하는 증거가 된다.

강한 주장에는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된다. 사람은 아직 이름이 없는 대상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탐색한 뒤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풀이를 거쳐 모국어에 없던 개념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형식이 마련되어야만 그에 대응하는 사고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이름을 얻은 뒤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찾거나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색채 지각 연구도 두 주장을 구별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일부 언어는 밝은 파랑과 어두운 파랑을 일상적으로 서로 다른 기본 명칭으로 구분한다. 이런 언어의 화자는 두 색이 명칭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제시될 때 같은 범주 안의 색들을 비교할 때보다 더 빠르게 차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언어적 처리를 방해하는 과제를 수행하면 이러한 속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는 색을 부르는 말이 판단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두 색을 가르는 별도의 이름이 없는 언어의 화자도 색 자극을 나란히 제시하면 그 물리적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반면 색의 명칭 경계가 있는 화자는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두 색을 일부 과제에서 더 빨리 구별했다. 따라서 언어가 지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어는 사고의 감옥이라기보다 특정 정보에 주의를 이끌어 판단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주는 습관적 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1) ㉠을 가리키는 용어를 윗글에서 한 단어로 찾아 쓰시오. (2.5점)
- (2) ㉡에 들어갈 주장의 강도를 ‘○○ 주장’의 형식으로 쓰시오. (4.0점)
- (3) ㉢의 결과가 강한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되면서도 약한 주장과 양립하는 이유를 7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5.5점)

9

8점

다항함수 $f(x) = x^3 + Ax^2 + Bx + 2$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lim_{x \rightarrow 2} \frac{f(x) + f(4-x) - 2f(2)}{(x-2)^2} = 8$$

$$(나) \lim_{x \rightarrow A} \frac{f(x) - f(A)}{x - A} = 23$$

(1) 상수 A 의 값을 구하시오. (2.6점)

(2) 상수 B 의 값을 구하시오. (5.4점)

10

12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 A - |2 \cos\{B(x - C)\} - 1|$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단, A, C 는 실수이고, B 는 자연수이며 $0 < C < \frac{\pi}{2B}$ 이다.

(가) 함수 $f(x)$ 의 최솟값은 -2 이다.

(나) 방정식 $f(x) = 1$ 은 $0 \leq x < 2\pi$ 에서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실근을 갖는다.

(다) $f(0) = 1$ 이다.

또한 $0 \leq x \leq \pi$ 에서 부등식 $f(x) \geq 0$ 의 해집합의 길이를 D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A 의 값을 구하시오. (2.4점)

(2) B 의 값을 구하시오. (2.8점)

(3) C 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4) D 의 값을 구하시오. (4.3점)

국어

1 11.5점	(1) 3.3점
	(2) 2.7점
	(3) 5.5점
2 9점	(1) 2.0점
	(2) 3.0점
	(3) 4.0점
3 9.5점	(1) 2.3점
	(2) 3.1점
	(3) 4.1점
4 9점	(1) 2.3점
	(2) 3.0점
	(3) 3.7점
5 9.5점	(1) 2.5점
	(2) 3.0점
	(3) 4.0점

6 9.5점	(1) 2.4점
	(2) 4.2점
	(3) 2.9점
7 10점	(1) 2.4점
	(2) 3.0점
	(3) 4.6점
8 12점	(1) 2.5점
	(2) 4.0점
	(3) 5.5점

수학

9 8점	(1) 2.6점	(2) 5.4점		
10 12점	(1) 2.4점	(2) 2.8점	(3) 2.5점	(4) 4.3점

득점

/ 20점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인문계열)

문항 10문항	구성 국어 8문항(1~8번) 수학 2문항(9~10번)	배점 100점	시험 시간 90분
-------------------	---	-------------------	---------------------

빠른 정답

수학은 소문항별로 채점합니다. 작은 숫자는 소문항 배점입니다.

국어

문항	정답	배점
1	(1) 위기 (2) 공약 불가능성 (3) (가)는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나)는 P가 반증되었다고 본다.	11.5점
2	(1)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 (2) 변화 (3) 동물원과 산의 관습적 관계를 뒤집어 산짐승을 새롭게 지각하게 한다.	9점
3	(1) 우월 전략 (2) X에서는 유지될 수 없고, Y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 (3) 잃을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배신 이득을 상쇄한다.	9.5점
4	(1) 비경합성 (2) 과소 공급 (3) 민간 시장: 비공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공급	9점
5	(1) 한계 소비 성향 (2) 축소된다 (3)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 증대 폭은 커지지만, 구축 효과가 강할수록 그 폭은 줄어든다.	9.5점
6	(1) 종 풍부도 (2) 첫째 입장은 종의 수만으로 판단하지만, 둘째 입장은 종의 수와 개체 분포를 함께 본다. (3) A 군집	9.5점
7	(1) 결정적 순간 (2) 응축 (3) 결정적 순간은 전체 과정을 복제하지 않지만, 사건의 의미가 응축된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10점
8	(1) 언어결정론 (2) 약한 주장 (3) 색 이름이 없어도 색 차이를 지각할 수 있어 언어가 사고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언어별 색 범주는 색 구별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2점

수학

문항	(1)	(2)	(3)	(4)	배점
9	-2 2.6	3 5.4			8점
10	1 2.4	3 2.8	$\frac{\pi}{9}$ 2.5	$\frac{11\pi}{18}$ 4.3	12점

문항별 해설 · 채점 기준

국어

1 11.5점 10분	영역	독서 — 인문 독서
	핵심개념	쿤의 정상 과학·변칙 사례·과학 혁명·공약 불가능성과 포퍼의 반증주의
	출제 의도	쿤의 핵심 개념을 추론·확인하고, 포퍼의 반증주의를 외적 준거로 활용하여 동일한 연구 상황에 대한 두 관점의 판단을 구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본문과 별개의 글을 함께 줌)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위기 허용: 위기	‘위기’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3점
(2)	공약 불가능성 허용: 공약 불가능성, 공약불가능성	‘공약 불가능성’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7점
(3)	(가)는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나)는 P가 반증되었다고 본다. 허용: ‘(가)는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나)는 P가 반증되었다고 본다’, ‘쿤은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기존 패러다임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포퍼는 P가 반증되었다고 본다’,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가)의 위기가 발생했고, (나)에 따르면 P는 반증된 것이다’처럼 두 필수 용어와 두 판단이 모두 드러나는 표현. ‘위기에 놓였다, 위기에 들어섰다, 위기가 발생했다, 패러다임의 신뢰가 흔들렸다, ‘반증되었다, 반증된 것으로 본다, 반증된 것이다’ 및 어미·주어·제시 순서의 변형을 허용함, (가)는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나)는 P를 반증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본다, 변칙 사례의 누적으로 쿤의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포퍼의 관점에서는 P가 반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변칙 사례가 누적되어 기존 패러다임이 위기에 놓였다’와 ‘포퍼의 관점에서 P가 반증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5점

- (1) 핵심적인 변칙 사례가 누적되고 기존 틀 안의 해결 시도가 실패하여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태를 쿤은 ‘위기’라고 한다. ‘혁명’은 경쟁 패러다임을 연구 공동체가 받아들인 뒤의 변화를 가리키므로, 그러한 수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에는 들어갈 수 없다.
- (2) (가)의 마지막 문단은 패러다임 사이에 중립적인 공통 척도를 세우기 어려운 관계를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명명한다. ‘중립적인 공통 척도’는 그 관계에서 세우기 어려운 척도를 가리킬 뿐 관계의 이름이 아니며, 발문이 요구한 여섯 음절에도 맞지 않는다.
- (3) (가)의 관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변칙 사례가 누적되었으므로 기존 패러다임이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 (나)의 관점에서는 측정 조건과 보조 가정을 점검한 뒤에도 P의 핵심 예측이 반복해서 실패했으므로 P가 반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과학 혁명으로 판단하는 답은 <보기>에서 경쟁 이론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점과, 경쟁 패러다임의 수용을 혁명의 조건으로 삼은 (가)의 설명에 어긋난다.

2 9점 9분	영역	문학 — 수필 + 인문 독서
	핵심개념	낯설게 하기, 지각의 자동화, 관습적 관계의 역전
	출제 의도	낯설게 하기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산촌여정」의 표현이 산짐승에 대한 익숙한 인식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상, 「산촌여정」(1935) — 2027 수능특강 문학 수록 / (나)는 새로 쓴 글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	----------	-------	----

(1)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 허용: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0점
(2)	변화 허용: 변화, 전화(轉化)	‘변화’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0점
(3)	동물원과 산의 관습적 관계를 뒤집어 산짐승을 새롭게 지각하게 한다. 허용: 동물원과 산의 관계를 뒤집어 산짐승을 새롭게 보게 한다.; 산과 동물원의 통념적 관계를 역전하여 산짐승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산과 동물원의 소속 관계를 역전해 산짐승을 낯설고 새롭게 보게 한다., 동물원과 산의 관습적 소속 관계를 바꾸어 산의 짐승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동물원과 산의 관습적 관계를 뒤집어 산촌 풍경을 새롭게 지각하게 한다.	‘동물원과 산의 관습적 관계를 뒤집음’과 ‘익숙한 대상(산짐승 또는 산촌의 풍경)을 새롭게 지각하게 함’이 포함되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0점

(1) 글쓴이는 산에 사는 짐승을 동물원에서 산으로 풀어놓은 짐승처럼 느낀다고 서술한다. 지정된 구절은 ‘착각’으로 끝나는 10어절이다.

(2) 낯설게 하기로 달라지는 것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 독자의 인식이므로, 문맥상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가 되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산짐승을 잡아 동물원에 가두지만, (가)는 동물원의 짐승을 산에 풀어놓은 것처럼 표현하여 두 공간의 관습적 관계를 뒤집는다. 이로써 독자는 익숙한 산짐승을 새롭게 지각한다.

3 9.5점 9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죄수의 딜레마, 우월 전략, 반복 게임, 할인 인자, 암울 전략
	출제 의도	일회 게임에서 배신이 선택되는 논리와 반복 게임에서 미래 보수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우월 전략 허용: 우월 전략, 우월전략	‘우월 전략’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3점
(2)	X에서는 유지될 수 없고, Y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 허용: X: 유지 불가, Y: 유지 가능; X: 협력 불가능, Y: 협력 가능, X에서는 불가능하고 Y에서는 가능하다, X 불가·Y 가능, X에서는 협력이 유지되지 않고 Y에서는 유지된다	X에서는 협력이 유지될 수 없고 Y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고 정확히 쓰면 정답이며, X의 판단에 1.6점, Y의 판단에 1.5점을 부여할 수 있음.	3.1점
(3)	잃을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배신 이득을 상쇄한다. 허용: 배신으로 잃을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일회적 이득을 더 상쇄한다., 배신으로 잃는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배신 유인이 약해진다, 미래 협력 보수와 보복 보수의 현재가치 차가 커져 배신 이득을 상쇄한다, 배신 시 포기하는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일회적 이득이 줄어든다	‘배신으로 잃는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져 일회적 배신 이득을 더 상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정답이며,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1점

(1)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더 큰 보수를 주는 전략은 ‘우월 전략’이다.

(2) 협력의 임계값은 $(T-R)/(T-P)=(8-5)/(8-2)=0.5$ 이다. X의 할인 인자 0.4는 임계값보다 작으므로 협력이 유지될 수 없고, Y의 할인 인자 0.7은 임계값 이상이므로 유지될 수 있다.

(3) 할인 인자가 커지면 배신으로 잃게 될 미래 보수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이 값이 일회적 배신 이득을 더 많이 상쇄하므로 배신의 유인이 약해진다.

4 9점 8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 무임승차와 과소 공급
	출제 의도	공공재의 두 성질을 구별하고, 무임승차가 시장 공급량과 사회적 최적 공급량의 차이를 만드는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비경합성 허용: 비경합성	‘비경합성’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3점
(2)	과소 공급 허용: 과소 공급, 과소공급	‘과소 공급’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0점
(3)	민간 시장: 비공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공급 허용: 민간 시장은 비공급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급함, 비공급·공급	민간 시장의 결과를 ‘비공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공급’으로 각각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이며, 하나만 맞으면 1.8점을 부여할 수 있음.	3.7점

(1)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이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성질은 비경합성이다.

(2) 무임승차로 공급자가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해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공급량보다 작아지는 현상은 과소 공급이다.

(3) 어느 주민의 개인적 편익도 제작 비용 7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비용 전액을 내려는 주민이 없어 민간 시장에서는 방송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주민의 편익을 합하면 9만 원으로 제작 비용보다 크므로 사회적으로는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9.5점 9분	영역	독서 — 사회 독서
	핵심개념	정부 지출 승수, 한계 소비 성향, 누출, 구축 효과
	출제 의도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을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를 이해하고, 한계 소비 성향과 구축 효과가 소득 증대 폭에 미치는 영향을 두 관점을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본문과 별개의 글을 함께 줌)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한계 소비 성향 허용: 한계 소비 성향, 한계소비성향	‘한계 소비 성향’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5점
(2)	축소된다 허용: 축소된다	‘축소된다’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0점
(3)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 증대 폭은 커지지만, 구축 효과가 강할수록 그 폭은 줄어든다. 허용: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 폭이 커지고 구축 효과가 강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 증대 폭이 커진다’와 ‘구축 효과가 강할수록 소득 증대 폭이 작아진다’가 포	4.0점

할수록 소득 증가 폭이 작아진다는 취지의 문장,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소득 증가 폭은 확대되고 구축 효과가 클수록 축소된다, 한계 소비 성향의 상승은 소득 증대 폭을 키우고 구축 효과의 강화는 이를 줄인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으면 국민 소득 증가가 커지나 구축 효과가 크면 작아진다	함되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	--

(1) (가)의 둘째 문단은 추가 소득 가운데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같은 문단의 ‘정부 지출 승수’도 6음절 용어이지만, 이는 정부 지출과 국민 소득 증가의 배수를 가리키므로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에 따르면 국채 발행은 금리를 올리고 민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일부가 민간 지출 감소로 상쇄되므로 소득 증가 폭은 단순 승수의 예측보다 ‘축소된다’. 따라서 상쇄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 폭이 더 커진다는 ‘확대된다’는 (나)의 인과 관계와 반대된다.

(3) (가)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의 연쇄가 길어져 소득 증대 폭이 커진다. 반면 (나)의 구축 효과가 강해지면 민간 지출이 더 많이 감소하므로 소득 증대 폭은 작아진다. ‘구축 효과가 강할수록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고만 쓰면 관련 현상은 설명하지만, 구축 효과가 소득 증대 폭을 줄인다는 결과를 명시하지 못하므로 발문의 ‘각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6

9.5점
9분

영역	독서 — 과학 독서
핵심개념	생물 다양성 지수에서 종 풍부도와 균등도의 관계
출제 의도	종 풍부도와 균등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 지표에 관한 두 입장을 비교한 뒤 군집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종 풍부도 허용: 종 풍부도	제2문단의 ‘종 풍부도’를 2어절, 4음절로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4점
(2)	첫째 입장은 종의 수만으로 판단하지만, 둘째 입장은 종의 수와 개체 분포를 함께 본다. 허용: 한쪽은 종의 수만 기준으로 삼고, 다른 쪽은 종의 수와 개체 분포를 함께 본다., 첫째 입장은 종 풍부도만 사용하고 둘째 입장은 종 풍부도와 균등도를 함께 사용한다, 첫째는 종의 가짓수만 보고 둘째는 종의 가짓수와 종별 개체 수의 분포까지 함께 본다	첫째 입장은 종의 수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둘째 입장은 종의 수와 개체 분포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면 정답이며,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2점
(3)	A 군집 허용: A 군집	‘A 군집’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9점

(1) 군집을 이루는 종의 가짓수는 제2문단에서 ‘종 풍부도’로 명명된다. ‘종의 수’도 같은 뜻을 풀이하지만 개념의 명칭이 아니며 2어절 4음절이라는 형식에도 맞지 않으므로 ‘종 풍부도’만 답이 된다.

(2) 첫째 입장은 종의 출현과 소멸을 직접 나타내는 종의 수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입장은 종의 수뿐 아니라 종별 개체 수의 분포, 즉 균등도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둘째 입장이 균등도만 사용한다고 서술하면 종 풍부도도 함께 고려한다는 ㉠의 내용을 빠뜨리므로 답이 될 수 없다.

(3) A 군집은 네 종의 상대적 비율이 모두 0.25로 같고, B 군집은 한 종의 비율이 0.7로 치우쳐 있다. 종의 수가 같은 조건에서 균등한 A 군집이 새년 지수와 심프슨 다양도 모두 더 크다. 그러므로 비율이 치우친 B 군집은 두 지수에서 더 큰 값을 갖는 군집이 될 수 없다.

7

10점
10분

영역	독서 — 예술 독서
핵심개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과 사진의 시간적 선택성
출제 의도	브레송의 사진관을 이해하고, 단일 사진과 연속 기록의 차이를 통해 결정적 순간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본문과 별개의 글을 함께 줌)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결정적 순간 허용: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4점
(2)	응축 허용: 응축	'응축'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0점
(3)	결정적 순간은 전체 과정을 복제하지 않지만, 사건의 의미가 응축된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허용: 전체 과정을 재현·복제하지 않더라도 한순간에 사건의 의미 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응축되어 드러난다는 내용의 표현, 결정적 한순간은 전체 과정을 재현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응축해 보여 준다., 한순간은 전체 시간을 대신하지 않지만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관계를 밀도 높게 가시화한다., 잘 선택된 한순간은 전체 과정을 보여 주지 않아도 사건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응축하여 드러낸다.	'한순간이 전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응축해 보여 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답안이 공백과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45~55자이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6점

(1) ㉠은 사건의 의미와 화면의 형식이 동시에 질서를 얻는 때이므로, (가)의 용어인 '결정적 순간'에 해당한다. '의미 있는 관계'도 ㉠의 내용과 밀접하지만, 다섯 음절의 용어가 아니며 사진론의 명칭으로 제시된 표현도 아니다. 따라서 '결정적 순간'만 발문의 형식과 내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특히 '의미 있는 관계'는 공백을 제외해도 여섯 음절인 데 비해, (가) 1문단에서 다섯 음절의 사진론 용어로 명명된 것은 '결정적 순간'뿐이다.

(2) 단일 사진은 한순간에 주의를 집중시켜 사건의 의미를 밀도 높게 담고, 연속 기록은 생략된 시간적 맥락을 되살린다. 따라서 '복원'과 대조되는 ㉡은 '응축'이다. '복원'은 바로 뒤에서 연속 사진과 설명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일 사진의 기능을 묻는 ㉡에 들어갈 수 없다. 곧 같은 문장의 병렬 구조가 단일 사진에는 '응축'을, 연속 사진과 설명에는 '복원'을 각각 대응시키므로 두 말을 바꾸어 쓸 수 없다.

(3) ㉢은 한 장의 사진이 사건의 전 과정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브레송의 관점에서는 사진의 목적이 전체 과정을 복제하는 데 있지 않으며, 잘 선택된 한순간은 사건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응축하여 가시화할 수 있다고 재반론할 수 있다. '그중 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답은 분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순간이 사건의 의미 있는 관계를 드러낸다는 반론의 핵심이 없고, 오히려 ㉢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과정을 재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 5문단에 따라 그 한순간이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관계를 응축·가시화한다는 반론까지 제시해야 한다.

영역	독서 — 인문 독서
핵심개념	언어결정론, 언어와 사고의 상호 작용, 강한 주장과 약한 주장
출제 의도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주장과 사고의 경향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구별하고, 색채 지각 실험을 근거로 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이 시험을 위해 새로 쓴 글

소문항	정답·예시 답안	채점 기준	배점
(1)	언어결정론 허용: 언어결정론	‘언어결정론’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5점
(2)	약한 주장 허용: 약한 주장	언어가 기억의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만 기억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례의 성격을 추론하여 ‘약한 주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4.0점
(3)	색 이름이 없어도 색 차이를 지각할 수 있어 언어가 사고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언어별 색 범주는 색 구별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허용: 별도 색 이름이 없는 화자도 색 차이를 알아차리므로 언어가 지각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언어별 색 범주는 판단 속도에 영향을 준다, 별도 색 명칭이 없어도 색의 물리적 차이는 알아차리므로 언어가 지각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언어별 명칭 경계는 구별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색 이름이 없는 화자도 색을 구별할 수 있어 언어가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색 범주의 차이는 판단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백과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60~80자로 쓴 답안에서 ① 별도 색 이름이 없어도 색 차이를 지각할 수 있음(1.8점), ② 따라서 언어가 지각·사고의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음(1.7점), ③ 언어별 색 범주는 구별 또는 판단의 속도에 영향을 줌(2.0점)이 포함되면 정답이며,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5점

(1) ㉠은 언어 체계가 사고의 가능 범위를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윗글의 용어인 ‘언어결정론’에 해당한다. ‘강한 주장’도 관련된 표현이지만 이는 입장의 상위 분류이자 두 어절의 설명이며, ㉠ 바로 뒤에서 그 입장의 한 단어짜리 명칭을 ‘언어결정론’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윗글에서 한 단어로’ 찾으라는 조건까지 충족하는 답은 ‘언어결정론’뿐이다.

(2) 제시된 사례에서는 언어에 따라 행위자 기억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다른 언어의 화자도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기억의 경향에 영향을 준다는 ‘약한 주장’에 해당한다. ‘강한 주장’이라면 언어 형식이 없는 화자는 행위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하므로, 질문을 받으면 식별할 수 있다는 사례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특히 ‘식별할 수 있다’는 결과가 사고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는 약한 주장의 핵심과 직접 대응하므로 ‘강한 주장’은 답이 될 수 없다.

(3) 별도의 색 이름이 없어도 색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결과는 언어가 지각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강한 주장을 반박한다. 한편 언어별 색 범주가 구별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언어가 사고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약한 주장과 양립한다. ‘색 이름이 없어도 색 차이를 지각할 수 있다’는 내용만 쓰면 강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되지만, 명칭 경계가 구별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 둘째 결과가 빠져 약한 주장과 양립하는 이유까지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속도 차이만 제시하면 약한 주장과의 양립은 설명할 수 있어도 강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지각 가능성과 구별 속도라는 두 결과를 함께 서술한 답만 발문의 양쪽 요구를 모두 충족한다.

수학

9

8점
8분

단원	수학II — 다항함수의 극한과 미분계수(조건으로 함수 정하기)
핵심개념	다항함수의 극한, 미분계수, 대칭식, 미정계수
출제 의도	대칭적인 함수값의 극한으로 한 계수를 구한 뒤, 그 계수를 미분계수의 기준점에 적용하여 다른 계수를 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II 12쪽 Level 1 2번

(1) $h = x - 2$ 로 놓으면 $f(2 + h) + f(2 - h) - 2f(2) = (12 + 2A)h^2$ 이므로 $12 + 2A = 8$ 에서 $A = -2$ 이다.

(2) (나)의 극한은 $f'(A) = 3A^2 + 2A^2 + B = 5A^2 + B$ 이므로 $A = -2$ 를 대입한 $20 + B = 23$ 에서 $B = 3$ 이다.

[정답]

하위 문항	정답
(1)	-2
(2)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2.6점	2.6
(2)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5.4점	5.4

10

12점
12분

단원	수학I — 삼각함수의 최대·최소, 삼각방정식·부등식
핵심개념	삼각함수의 주기,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성, 최댓값과 최솟값, 삼각부등식
출제 의도	절댓값으로 변형된 코사인 그래프의 치역과 주기적 해의 개수를 해석하여 상수를 차례로 결정하고 삼각부등식의 해집합 길이를 구하게 한다.
연계 교재	2027 수능특강 수학I 48쪽 Level 2 3번

(1) $-1 \leq \cos\{B(x - C)\} \leq 1$ 이므로 $|2\cos\{B(x - C)\} - 1|$ 의 최댓값은 3이고, $A - 3 = -2$ 에서 $A = 1$ 이다.

(2) $A = 1$ 일 때 $f(x) = 1$ 은 $\cos\{B(x - C)\} = \frac{1}{2}$ 와 같고, 길이가 $2\pi B$ 인 반열린 구간에서 해가 $2B$ 개이므로 $2B = 6$ 에서 $B = 3$ 이다.

(3) $f(0) = 1$ 에서 $\cos(BC) = \frac{1}{2}$ 이고 $0 < BC < \frac{\pi}{2}$ 이므로 $BC = \frac{\pi}{3}$ 에서 $C = \frac{\pi}{9}$ 이다.

(4) $f(x) \geq 0$ 은 $\cos\left(3x - \frac{\pi}{3}\right) \geq 0$ 과 같으므로 해집합은 $0 \leq x \leq \frac{5\pi}{18}$ 또는 $\frac{11\pi}{18} \leq x \leq \frac{17\pi}{18}$ 이고, $D = \frac{11\pi}{18}$ 이다.

[정답]

하위 문항	정답
(1)	1
(2)	3
(3)	$\frac{\pi}{9}$
(4)	$\frac{11\pi}{18}$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2.4점	2.4
(2)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2.8점	2.8
(3)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2.5점	2.5
(4)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4.3점	4.3